日 반환 서산 부석사 불상, 복원본 봉안

서산 부석사, 5월 17일 봉안식
日 간논지, 정밀 3D 데이터 제공
조성 당시 모습 복원…7월 공개
원우 스님 "문화적 자존감 회복"

서산=유재상 충청지사장


서산 부석사는 5월 17일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불상은 일본 간논지에서 정밀 데이터를 제공받아 복원한 것이다.

왜구에게 약탈돼 일본으로 넘어간 뒤 647년 만에 돌아왔다가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일본에 반환됐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복원돼 도량에 봉안됐다.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는 5월 17일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비록 원본이 아닌 복원품이지만 70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 본래 자리에서 다시 자비의 상징으로 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100일 친견법회와 환지본처 운동, 한일 협력을 통한 정밀 복원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날 봉안식은 문화유산 회복을 넘어 공동체 치유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날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충숙왕 17년인 1330년 서주(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불상으로 고려 말 왜구 침략 시기 일본 간논지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 절도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다시 알려졌다. 10여 년의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대법원이 일본 간논지 소유를 인정하면서 원본은 반환됐지만 부석사와 충청남도, 지역 불자들은 '환지본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복원 불사에 뜻을 모았다.

복원 사업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돼 추진됐다. 일본 간논지 측 협조로 3차원(3D) 스캔 데이터를 제공받았고 약 9개월의 제작 과정을 거쳐 고려시대 원형을 최대한 살린 복원품이 완성됐다. 연구원은 1330년 조성 당시 모습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관음보살상과 비교 연구를 거쳐 보관과 세부 장식도 복원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기념사에서 "이번 불사는 상처 입은 민족혼의 치유이자 우리 문화적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다시 이 땅에 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법문에서 "관음신앙은 특정 종교를 넘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며 "오늘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많은 이들의 삶에 위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충남도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복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전 간논지 주지 다나카 세코 스님과 나카니와 가지히데 쿠모노스 코퍼레이션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친견을 이어가는 한편, 7월 충남역사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스님 12명 제1대 국가유산위원 위촉

국가유산청, 5월 15일 위촉식
전문위원에도 12명 스님 위촉
재가불자 전문가도 이름 올려

새롭게 통합 개편된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스님들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5월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하고 전체 위원장단과 12개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 1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국가지정(등록)유산의 지정(등록) 및 해제,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12개 분과위원회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건축문화유산분과)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동산문화유산분과)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사적분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무 스님(매장유산분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근현대문화유산분과)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민속문화유산분과)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세계유산분과)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궁능유산분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전통예능분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전통기술·지식 분과)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동식물분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각림 스님(지질명승조경분과) 등 스님 12명이 고루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에도 스님 12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재가불자 전문가들도 위원과 전문위원에 다수 포진됐다. 동산문화유산분과 위원으로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을 지낸 이용윤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과 교수와 임영애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동산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으로 유근자 동국대 미술학부 강의초빙교수, 유대호 조계종 문화부 문화유산팀장, 인용민 청람문화유산연구원 실장, 본지 필진으로 활동한 조성금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가 위촉됐다.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으로는 서칠교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2024년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유형별 3개의 위원회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개편해 발족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양한 분야와 각 지역의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위원 비율을 과거 평균 50% 수준에서 58%(78명)로 높여 신진 학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각 지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위원은 43%, 비수도권 위원은 57%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조사·심의 기능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은 앞으로 2년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각종 주요사항들을 조사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5월 15일 열린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 스님들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리좀으로 읽는 인드라망

㊷ 상즉상입(相卽相入)

相 卽 相 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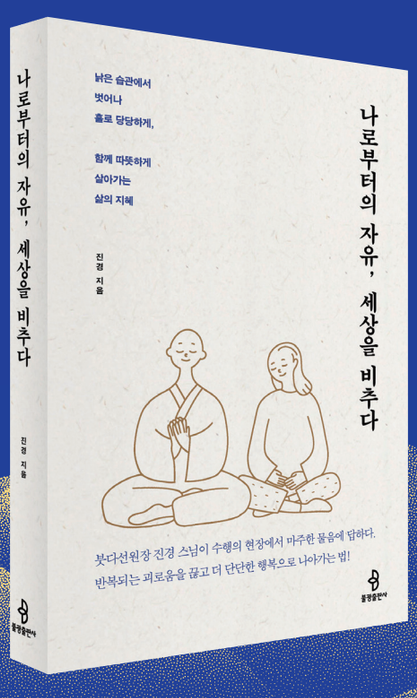
현대 서구 철학의 흐름 속에서 불교의 무자성(無自性)·연기(緣起)·공(空)의 세계관과 깊이 공명하는 사상가들을 발견하는 일은 무척 흥미롭다. 존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생성'과 '관계'의 장으로 이해한 마르틴 하이데거,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넘어 몸의 지각을 철학의 중심에 놓은 모리스 메를로퐁티, 그리고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성을 역설한 에마뉘엘 레비나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적 사유와 가장 역동적으로 맞닿아 있는 철학자를 꼽으라면, 단연 질 들뢰즈를 떠올리게 된다. 들뢰즈는 '동일성의 철학'을 거부하고 '차이'와 '생성'을 사유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고정된 자성 없이 존재들이 서로 얽히고 스며들며 세계를 이루는 방식을 가장 전위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제시한 '리좀(Rhizome)'은 이러한 사유를 상징하는 핵심 개념이다. 본래 리좀은 생강이나 잔디의 뿌리처럼 중심 없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땅속 줄기를 뜻한다. 이는 하나의 중심 뿌리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수목형(樹木型) 구조와 대조된다. 나무가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질서를 상징한다면, 리좀에는 중심도 시작도 끝도 없다. 어디서든 새순을 틔우고, 어느 지점에서 끊기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선을 그리며 뻗어 나간다. 리좀은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지도이며, 이질적인 존재들이 우연히 만나 새로운 의미를 빚어내는 살아 있는 연결망이다.

이러한 리좀의 사유는 화엄철학의 '상즉상입(相卽相入)'과도 깊이 호응한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스며들며[相入], 동시에 서로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相卽] 화엄의 우주는 거대한 리좀의 장과도 같다. 리좀의 마디들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디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얻듯, 상즉상입 또한 '나'라는 고정된 자성을 비울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순간 우주는 나에게 스며들고, 나는 다시 우주 속으로 스며든다. 그렇게 모든 존재가 막힘없이 서로를 비추는 사사무애(事事無礙)의 세계가 열린다. 중심 없는 리좀의 연결망은 수많은 보석이 서로를 끝없이 비추는 인드라망의 현대적 철학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좀과 상즉상입의 사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연결은 종종 획일적 전체주의나 배타적 진영 논리로 변질된다. 이때 리좀적 사유는 '고정된 중심에 갇히지 않는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운다. 상즉상입의 통찰처럼, 타자의 존재가 곧 나의 존재를 비추고 확장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독단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세계의 경계를 높이 쌓는 폐쇄적 사유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관계 맺고 흐르는 유목민적 사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유연하고도 지혜로운 나침반일 것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덕유산 자락 해발 720미터,
붓다선원에서 펼쳐진 인생 문답!
삶의 물음을 품고 찾아온 길 위의 인연들에게
진경 스님이 전하는 단단한 행복의 이정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정수를 전하는
'반드시 가봐야 할 수행처' 붓다선원.
출가 40년, 진경 스님이
전 세계 수행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고통 없는 행복의 길.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 홀로 당당하게,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진경 지음 | 384쪽 |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진다면
『법화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불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 제4탄!

『법화경』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뭉클하고 유쾌한 『법화경』 강의!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법화경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지음 | 336쪽 | 18,000원

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원영 스님 특별 강연
일시 6.13. 토요일 3시
장소 대구 엑스코 동관 4홀 메인 무대